

광주지하철 무임승차 32%... 전국 평균 2배

구도심 중심 단선, 승객 적고 노인·유공자 이용객 많아
시장정 타격...정부 '교통복지' 위해 손실분 지원 나서야

광주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임승차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고수준의 무임승차비율과 저조한 이용률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

광주도시철도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감가상각비 353억원, 인건비 278억원, 위탁수수료 109억원, 무임승차 요금 70억원, 동력비 46억원

등 총 873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수입은 운송요금 108억원, 임대수익 29억원, 광고수익 7억원 등 140억원에 그쳐 결과적으로 7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무임승차 요금을 포함해 광주도시철도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무려 370억원을 지원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 재정상태가 광주도시철도도의 적자를 보전하느라 더욱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도시철도 관계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의 67%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반철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교통복지의 차원에서라도 정부에서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기아차 노사 임협 잠정 합의

노조 오늘중 찬반투표

기아자동차 노사가 2개월여를 이끈 올해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13일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9일 현대차 노조가 합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기아차의 가결 전망도 밝다. <관련기사 8면>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11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12차 본교섭을 열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13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7월2일 노사가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두 달여 만이며 그동안 노사는 1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다. 협상 와중에 노조는 7차례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내용은 기본급 9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격려금 500%+870만원(경영성과 350%+500만원, 생산관리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글로벌 품질경영 성과장려금 100%, 브랜드가치 향상 특별격려금 50%+50만원,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운누리상품권 20만원), 주간 연속2교대 여자선용 복지 포인트 50만 포인트 지급 등이

다. 임금과 관련, 지난 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한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노조가 내놓았던 별도 요구안 20건 가운데 노사는 사회공헌기금 20억원 출연과 주간 연속2교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등에 합의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사내협력업체 직원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신규소요 발생 시 협력업체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규모 및 시기 등은 올해 말까지 특별교섭을 통해 별도협의할 것과 사내협력업체 인원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잠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아차는 정년연장과 상여금 50% 인상, 노조 활동과 관련한 면제특권 보장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불수용' 원칙을 고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두 달여의 집중교섭을 통해 회사는 원칙을, 노조는 실리를 추구하는 합리적 안을 마련했다"며 "사회공헌기금을 지난해보다 배로 늘려 더 많은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의 의미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 초 임금협약 타결 조인식이 열린다. 기아차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투표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임동행기자 exian@kwangju.co.kr>



한가위 정 듬뿍 담긴 '사랑의 송편'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소속 자원봉사단원들이 12일 광주시 북구 각동회 북구장애인복지회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을 만들어 포장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이 송편을 이날 북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1000세대에 전달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朴대통령 여야대표 3자회담 제안... 민주당은 수용 유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대치 정국을 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정확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가 뚜렷하지 않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관련기사 4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직접 회담을 방문해 순방 결과를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그 직후 연이어 국회에서 여야 대표 3자회담을 통해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야당과 '정국 관련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국사로, 불투명하게 만나는 것보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만나서 서로 못할 이야기가 없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

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대통령이 찾아가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 협조를 구할 일이 많으니 국회를 존중하고 정국 교착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지도부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의 오늘 제안에

대하여 정확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회담에 앞서 청와대의 제안 의도를 파악하고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사전에 접촉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기춘 실장이 통보한 내용과 그에 이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으로,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9월4일(수)~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062)226-0001
Mercedes-Benz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지정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사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친환경다원
작설차
고품질 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T.222-2902, 3973

감농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NC점 062-510-7040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